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홋카이도도 이제 점점 가을로 물들어가는 중이지만, 여름이라는 계절의 존재감은 이곳에서도 매년 뚜렷해지는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게, 올해는 몇 차례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기도 했고, 장마처럼 습하고 꾸물꾸물한 날씨가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홋카이도는 '여름에 무척 시원하다'는 말도, '장마가 없어서 쾌적하다'는 말도 옛날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3개월 후 롱패딩을 입고 미끄러질세라 눈길을 살금살금 걷다 보면 이 계절이 다시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황금빛이 물결치는 해바라기 밭은 홋카이도의 여름철 볼거리 중 하나입니다. 홋카이도 호쿠류초(北竜町)의 '해바라기 마을'에서는 7월 말부터 약 한 달간 2만 송이의 해바라기를 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꽃들이 빼곡히 들어찬 밭을 보니 마치 열광하는 수만 명의 관객을 거느린 여름 축제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오면(麵)

한국에서는 '콩국수'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라면, 일본에서는 중식당의 '히야시 चु카(중화 냉면)'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멘 가게들은 따뜻한 국물에 면을 찍어먹는 '츠크멘' 혹은 차가운 국물의 '냉라멘'을 여름 한정으로 선보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도 한식당에서 냉면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 파는 냉면은 한국 현지와는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쫄면같은 면을 넣은 물냉면 위에 삶은 계란과 수박, 등글게 썬 오이 등을 곱명으로 올린 '모리오카 냉면'을 한국식 냉면이라 칭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 계절에는 차가운 면요리들이 편의점 진열대를 점령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라멘 사라다'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이 메뉴는 차가운 면을 넣어 만든 샐러드로, 삿포로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급식, 술안주 등으로도 인기 있는 도민들의 소울 푸드인 만큼 홋카이도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지만, 관광객 분들께서는 의외로 이 음식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채소의 아삭한 식감과 참깨 드레싱의 고소함이 어우러진 라멘 사라다 또한 여름철 입맛 돋우기에 제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히야시 चु카 (위), 라멘 사라다 (아래)

기온도 ↗ 물가도 ↗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는 대체로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이곳에서도 작년부터 물가가 오르고 있는게 실감납니다. 지난 겨울에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어 '네아게노 후유(가격이 인상되는 겨울)'라는 표현이 방송에 등장했고, 올들어는 국제정세로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와 물류비 등이 상승되며 가공식품들의 가격인상이 잇달았습니다. 급기야는 40년간 100엔을 고수해온 회전초밥 체인점마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통계만큼이나 물가인상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국제교류원의 여름나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중단되었던 각종 이벤트들이 3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어 이번 여름에는 홋카이도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㉑ 삿포로 시내 나카지마 공원에서 열린 '삿포로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평일에 열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첫 날 무려 14만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㉒ 오도리 공원에서 열린 '요사코이 소란 축제'를 구경했습니다. 역동적인 음악과 화려한 의상, 칼군무가 한데 어우러져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㉓ 홋카이도 마라톤에 출전했습니다. 워 행사들과 마찬가지로 마라톤 대회도 3년만에 개최되었습니다. 날이 더웠지만 시민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풀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했습니다.

㉔ 에니와시(恵庭市)에서 개최된 '가든 페스타 홋카이도 2022'에 다녀왔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색색의 꽃들과 라이브 공연을 구경하며 느긋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㉕ 홋카이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명소 중 하나인 샤코탄초(積丹町)의 '가무이 미사키'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이 지역은 코발트 블루색 바다가 펼쳐져 '샤코탄 블루'라 불립니다. 바다 뿐만 아니라 뽕죽뽕죽 솟아난 바위들도 물결치는 것 같았습니다.

㉖ 삿포로 히츠지가오카 전망대 라벤더 밭에서 라벤더를 수확했습니다. 시내 풍경과 멋진 라벤더 밭, 양들까지 볼 수 있어 도시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㉗ 오도리 공원에서는 홋카이도 각지의 맛있는 먹거리들이 모인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홋카이도에는 와인, 사케와 더불어 개성 넘치는 크래프트 맥주들도 종류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㉘ 여름한정 디저트를 먹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름철이 되면 과일 젤리, 유바리 메론을 올린 케이크나 팔로로 만든 차가운 디저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는 달콤한 '냉단팔죽'을 먹었습니다.

㉙ 삿포로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인 '삿포로 오도리 비어가든'에 가봤습니다. 3년 넘게 삿포로에 살았지만 비어가든 축제에 가보는 건 처음입니다. 구역마다 분위기와 테마가 다른 비어가든을 즐길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